

## · 목 차 ·

- 2 포커스  
홈페이지 개설 1주년
- 4 의학리포트  
류마티스 양성,  
음성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 5 선인재 칼럼 2003년의 희망
- 6 뇌질환연구센터 5주년 기념 심포지움
- 8 진료교실  
성장호르몬의 허와 실
- 10 잊을 수 없는 환자  
요실금 환자의 슬픔과 행복
- 11 나의 연구 나의 테마  
나의 영원한 연구과제는  
'심장 되살리기'
- 12 인체탐방 뽀 이야기
- 14 내가 꿈꾸는 의료인  
처음의 마음가짐을 잊지말자!
- 15 AMC NEWS
- 19 시간안내  
심폐소생술, 죽는 사람도 살린다
- 20 건강 Q&A  
- 뇌경색과 스텐트 시술  
- 코피와 빈혈
- 22 우리 병원 어떻습니까  
내게 새 생명을 주신 분들
- 23 스포츠의학  
달리기, 좋아하세요?
- 24 의료정보 소개(Full PACS)  
디지털 영상진료를 개시하면서
- 25 잘못된 건강상식  
배란 계산법은 모든 여성이 동일하다?
- 26 혈액병리 탐방 백제병원
- 27 유명인과 질병  
간질환자 도스토예브스키
- 28 의료원발전 후원내역
- 30 전문클리닉 소식
- 31 진료시간표

## 아주대병원, FULL PACS 가동 -아주대병원, 디지털 영상진료의 새로운 장을 열다-



아주대병원이 지난 2월6일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영상진료(FULL PAC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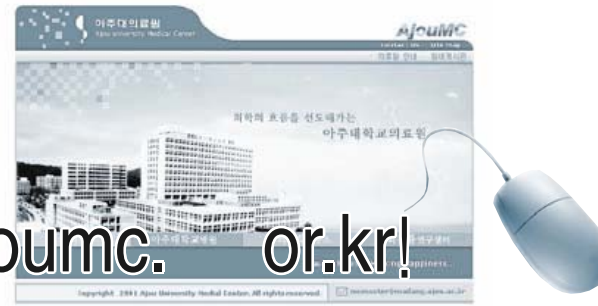
기존의 필름 대신 3초 이내에 조회가 가능한 고화질의 영상을 갖춘 아주대 병원 PACS는 방사선, 핵의학, 내시경, 초음파 영역의 PACS와 심장 PACS, 병리 PACS, 치과 PACS 등 3대 전문 PACS를 갖춘 FULL PACS입니다.

아주대병원의 PACS 도입은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에 효율성을 기하고, 진료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디지털 병원, 의료정보화의 꿈을 이뤄가기 위한 아주대병원 의 의지입니다(관련기사 P.24 참조).



아주대의료원 홈페이지 개설 1주년

우리집 메인 화면은 **www.ajoumc.or.kr!**



전형적인 병원 웹사이트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형식,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된 아주대의료원 웹사이트(www.ajoumc.or.kr)가 개설된 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났다. 지난 1년간의 아주대의료원 웹사이트 운영현황을 정리해 본다.

산시 등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지역의 거주자가 아주대의료원 웹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서울시 9.3%, 경상도 3.2%, 충청도 2.7%, 경상도 2.1% 등의 가입률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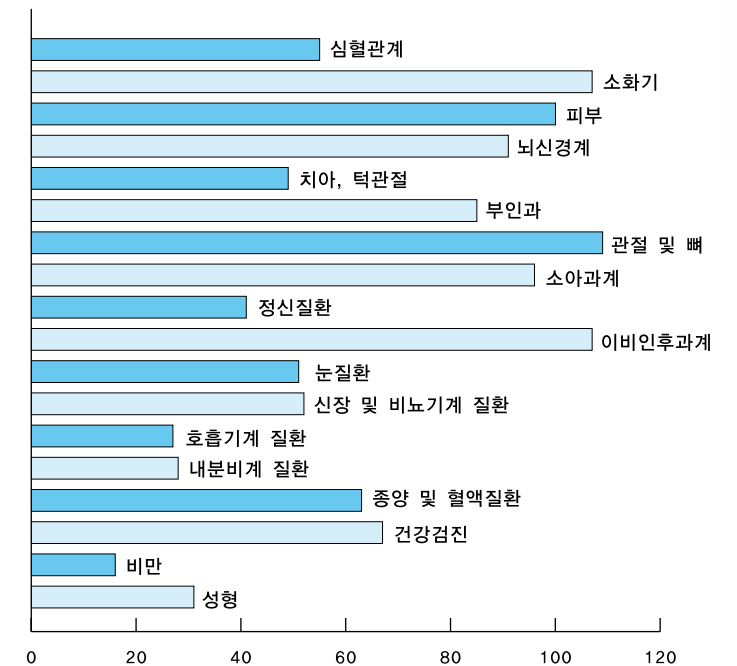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알아 본 회원현황에서는 20대가 43%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40%, 40대가 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터넷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2,30대와 건강에 관심이 높은 40대가 아주대의료원 웹사이트를 자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각종 질병 및 병원이용에 대한 도우미, Q&A

아주대의료원은 건강 및 질병, 병원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한 Q&A를 운영해 왔다. 1년간 접수된 질문은 총 2,130건으로, 답변 처리가 곤란한 질문을 제외하고 2,069건에 대해 답변했다. 특히, 아주대의료원은 Q&A를 비공개, 실명제 방식으로 운영하여 개인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상업적이거나 장난스런 글을 단호하게 배제하고 있어 비교적 원활하게 Q&A를 운영하고 있는 편이다.

Q&A를 통해 접수되는 질문들은 대부분 질병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이 많았으며, 진료과 및 진료시간, 종합검진, 취업안내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질문이 접수되고 있다. 특히, Q&A를 통해 아주대병원의 친절함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올리는 감사의 글도 접수되어 운영상 어려움 점이 적지 않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주대의료원 웹사이트를 처음 개설하며 의욕 가득했던 그때가 다시금 생각난다. 처음의 생각처럼 모든 것을 다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여러 교직원들의 도움으로 나름대로 잘 가꾸고 운영해 올 수 있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보다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되듯이, 아주대의료원은 1년간의 웹사이트 운영 경험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유익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항상 새로운 모습에 도전해 갈 것이다.



▲ Q&A에 접수된 2,130건의 질문 중 질환별 질문현황(취업관련 문의 등 진료 이외의 내용 제외)

▲ 새롭고 유익한 내용의 콘텐츠

오픈 당시, 국내 병원 웹사이트 중에서는 드물게 콘텐츠 위주의 웹사이트를 개설한 아주대의료원은 뉴스를 제외하고 1년간 총 188건의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 평균적으로 이틀에 한편씩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했다.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해내는 일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취재, 원고 청탁 등 많은 손을 거쳐 이루어지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읽어보고, 도움을 얻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각종 삽화와 사진 등을 총동원하여 웹사이트를 꾸려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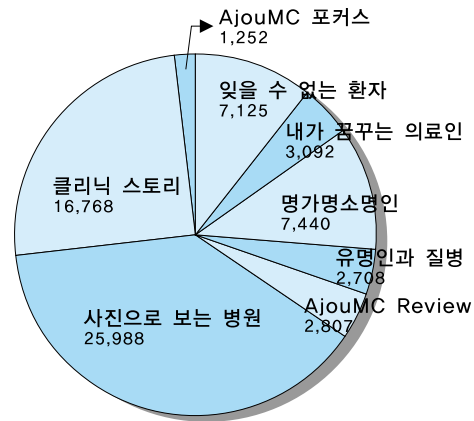
주요 콘텐츠는 병원 내 이야기를 다양하게 구성한 잊을 수 없는 환자, 사진으로 보는 병원, AjuMC Review와 병원 밖 수원시내를 소개하는 명가명소명인, 그리고 알기 쉽게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유명인과 질병, 클리닉 스토리 등으로,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코너는 단연 「사진으로 보는 병원」이었다.

텍스트 위주의 다른 콘텐츠들과는 달리 사연이 있는 사진을 통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자 기획된 「사진으로 보는 병원」은 모 신문사 기자도 참 좋은 코너라며 칭찬했던 코너이다. 1년간 총 20건이 제작된 사진으로 보는 병원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주대병원과 함께 한 종합병원」 편.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대병원하면 TV 드라마 종합병원을 떠올리며, 그때를 회상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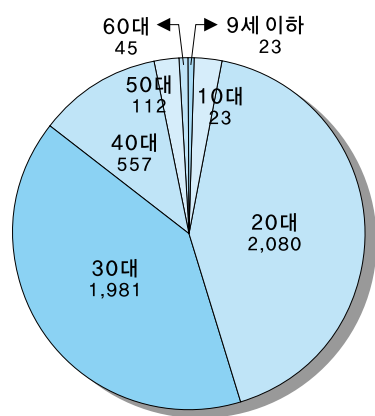
▲ 20, 30대 수원시 거주자가 단골

오픈 당시 아주대의료원 웹사이트의 1년간 가입회원 목표는 2,500명. 하지만 2003년 2월4일까지 가입한 총 회원수는 5,465명으로 처음의 목표보다 2배 많은 사람들이 아주대의료원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었다.

가입회원을 지역별로 분석해 본 결과 전체 5,465명 중 약 74%가 경기도 거주자였으며, 이중 아주대의료원이 위치해 있는 수원시 거주자가 52%를 차지하고 있었다. 수원시 외에도 용인시, 평택시, 화성군, 안



▲ 콘텐츠 조회수



▲ 연령대별 회원가입 현황

# 류마티스 양성, 음성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류마티스인자 양성 환자, 즉 혈액검사에서 류마티스인자가 검출되는 경우 인자가 검출되지 않는 음성 환자보다 염증이 더 심해지는 등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약물치료시 치료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 아주대병원 서창희 교수(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에 의하면

지난 1994년 6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약 8년간 아주대병원에서 류마티스관절염 진단을 받은 환자 중 109명을 2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 류마티스인자 양성 환자가 음성 환자보다 빈혈의 정도가 심하고, 백혈구와 혈소판이 증가하고, 염증수치가 의미있게 높게 나왔다고 한다.

**염증수치의 경우,** ESR(적혈구 침강 속도)에서는 류마티스인자 양성 환자가 49.1mm/hr, 음성 환자가 26.6mm/hr로 양성 환자의 수치가 더 높게 나왔으며, CRP(염증반응에 관여하는 단백질 CRP 측정)는 양성 환자가 2.85mg/dl, 음성 환자가 0.8mg/dl로 양성 환자가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염증수치는 일반적으로 ESR과 CRP로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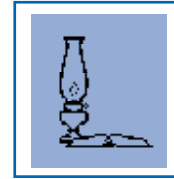
**이에 서창희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혈액검사 결과 류마티스인자가 검출되었다면 되도록 약물치료를 빨리 시작하고, 치료제를 더 많이 사용해야 좋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약의 개발로 많은 환자들이 부작용 없이 증상을 완전히 없애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대병원의 이번 조사대상 109명 중 류마티스인자 양성 환자는 64명,** 음성 환자는 45명이었으며, 양성군의 평균 연령은 46.2세, 음성군은 43.6세로, 침범한 관절은 손가락, 무릎관절, 팔꿈치, 어깨, 손목 그리고 발목순이었다.

류마티스인자 양성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중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만성적인 염증이 좌우 대칭적으로 침범하는 다발성 관절염으로, 전 인구의 약 1%에서 발병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원인은 아직 확실치 않으나 유전,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손가락, 발가락 관절, 손목, 발목, 발꿈치, 무릎 등에 통증과 붓기가 나타난다. 특히 많은 수의 환자가 만성 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의 전신증상을 호소한다.

류마티스관절염 인자는 1940년대 처음 발견되었으며, 류마티스관절염 이외에도 전신성 홍반성 낭창, B형 간염, 심내막염 혹은 정상인(약 5~25%)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 2003년의 희망

**국** 민들의 2003년 희망(希望)은 북한 핵(核)문제의 평화적 해결, 경제 활성화, 부조리 없고 노력한 만큼 보장받는 삶,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며 그야말로 우리 국가와 민족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아주대학교의료원도 지난 2000년도에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무리하게 시행된 의약분업, 학내문제, 노조파업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2001년에는 「화합과 안정의 해」, 2002년에는 「재도약을 위한 준비의 해」라는 단계를 거쳐 이제 2003년도는 「재도약의 해」라는 슬로건(slogan)을 내세우고 강신영 의료원장을 중심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비전(vision)을 제시하고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그것은 곧 우리 의료원의 모든 구성원들, 학교법인, 아주대학교, 지역사회 고객에게 희망과 관심을 갖게 하는 새로운 해가 될 것을 의미한다. 즉 지난 혼돈과 경영압박 속에서도 우리 구성원들이 어려운 환경과 악조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정비한 후 희망과 비전의 목표를 향해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현재 의료원은 개원 이후 1차 노후 의료장비 교체, PACS 도입, 수술실 확장 등의 의료 질 향상도 모, 합리적인 경영마인드, 급여인상,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는 인센티브제도,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지후생 배려 등을 토대로 재무구조의 안정을 꾀하면서 의료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논리와 현실을 감안(勘案)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특성화 지향 및 3차 병원의 역할 제고(提高),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중심체로서의 선도적(先導的)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의료원은 부족한 기숙사와 교육연구동 건

립 후 진료 및 연구공간 확장, 화성 신도시 제2부속 병원 건립추진, 경기도와 수원시 건립 특수병원 위탁운영, 협력병원과의 상호협조, 해외 우수 의과대학 및 병원과의 교류 증진 등의 세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정 집행,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복지후생 향상 정책을 통한 내부고객 만족이 뒷받침되어 모든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사기로 합심하여 힘을 발휘한다면 2003년도 아주대학교의료원의 희망과 비전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멀지 않아 간호학과와 간호대학 승격은 물론, 치과대학의 신설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천조자조자(天助自助者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였다.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우리 의료원의 관련 구성원(단체, 직종, 개인)들이 5년, 10년 후 미래(未來)를 생각하며 상생(相生)의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면서 2003년을 희망해 본다.



최영 행정부원장



# 뇌질환연구센터 국제심포지움 현황리에 끝내

뇌질환연구센터는 지난 98년 6월 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의 우수연구센터로 지정된 후 매해 뇌질환연구센터 국제심포지움과 아주브레인컨퍼런스(ABC)를 개최 왔으며 심포지움도 네 번째를 맞게 되었다. 2003년 2월7일 아주대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회 뇌질환연구센터 국제심포지움에는 3명의 외국인 연자를 포함하여 13명의 연자가 「신경세포사멸과 재생」을 주제로 최신의 연구지견을 발표하였고 150명이 참가하여 심포지움은 성공리에 끝났다.

이날 첫번째 연자인 뇌질환연구센터 김승업 소장은 현재 연구실에서 개발 중인 인간신경줄기세포를 파킨슨병, 뇌졸중등의 뇌질환 동물모델에 뇌이식하여 그 임상증세가 호전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신경줄기세포가 앞으로 뇌질환 진료에서 새롭고 효과적인 치료방책이 되리라는 결어로 강연했다. 이어서 뇌질환연구센터 목인희 교수가 알츠하이머병 마우스 모델에서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이상으로 사람의 알츠하이머병의 뇌병변과 동일한 병변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이를 어떻게 방지하는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의과학연구소의 정민환 교수는 뇌해마조직을 상해함으로써 일어나는 기억·학습 결손 랫트에 대하여 최신의 국내외 지견을 리뷰하였다. KIST의 신희섭 박사는 특이한 갈색체질 유전자를 결손시켜서 제작한 마우스에서 정신병 질환인 정서불안 증후군의 증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 하

였다. 김승업 교수의 제자인 Tokyo 신경과학연구소의 Watabe 박사는 신경영양인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 포함시킨 뒤 이를 운동신경세포병 랫트 모델의 뇌에 주사하였던 바 신경세포사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발표하여 뇌질환에서의 유전자치료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점심식사가 끝난 뒤 재개한 제2부에는 Kyoto대학 신경과의 Shimohama 박사가 신경교세포인 마이크로글리아가 알츠하이머병 환자 뇌에서 어떠한 기전으로 신경독인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가를 발표하였다. 이에 이어서 진병관 교수와 이용범 교수가 마이크로글리아가 각종 사이토카인을 생산하고 이들 사이토카인이 신경세포에 작용하여 신경세포사를 일으킨다는 주제 아래 마이크로글리아가 뇌질환 발병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서울약대의 오우택 박사는 통증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캡사이신 수용체와 그 활성화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제3부 신경세포사의 분자생물학적 연구부문에서는 한림의대의 김용선 박사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아닌 새로운 병원체인 Prion이 광우병이나 크로이츠펠트·제이콥병의 발병원인이며 Prion 연구가 아직도 그 시작단계임을 상기시켰다. Riken 신경연구소의 Takahashi 박사는 가족성 파킨슨병에서 보는 유전자 이상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데 새롭게 발견된 Parkin이

나 알파 Synuclein 등의 이상 단백질이 어떠한 경로와 기전으로 파킨슨병의 발병을 가져오는지 밝혔다. 이어서 센터 참여교수인 광병주 교수가 뇌질환 신경세포사에는 두가지 유형의 신경세포사가 있으며 이러한 세포사의 방책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센터 참여교수인 연세대의 오영준 박사는 새로운 연구기술인 프로테오믹스를 구사하여 조직배양 파킨슨병 모델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단백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센터 참여교수의 새로운 연구성과의 발표를 비롯하여 3명의 외국인 연자 그리고 3명의 타 대학 교수들의 각 전문분야에서의 새로운 지견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와 같이 아주의대 뇌질환연구센터 제4차 국제심포지움은 많은 참가자들의 참여 아래 성공리에 개최됐다.



김 승 업 소장 / 뇌질환연구센터

## 뇌질환연구센터의 연구전망

### 21세기는 줄기세포를 응용한 재생의학이 주도

뇌질환연구센터가 1998년 6월 설립된지 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매해 아주의대의 신경과학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책임자들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뇌졸중에 대한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에 정진하고 있다. 뇌질환연구센터가 한국신경과학계에서 가장 앞서고 활발한 연구자들이 모인 연구소라고 자타가 공인하게 된 것은 센터 소속 교수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아주대학교와 의료원의 지원이 크게 공헌 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1999년에 설립된 대학원 신경과학기술융합과정은 한국 최초의 신경과학계대학원 과정으로 센터 소속 교수가 중심이 되어 매해 50명 내외의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이들 대학원 졸업생들이 앞으로 한국신경과학계를 짊어지고 나갈 귀중한 인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2003년도에는 센터연구과제를 ▲ 인간신경줄기세포 분리와 응용 ▲ 신경세포사 기전 해명 ▲ 면역계에 의한 신경세포 변성과 그 방책의 세 과제로 대별화하여 연구프로젝트로 전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경줄기세포 분리와 응용」은 새로운 연구분야로서 세계적으로 경쟁이 높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이다. 인간배아에서 분리한 인간 배아줄기세포가 인간전체의 모든 조직과 기관으로 분화할 수 있는 전능성의 세포이므로 앞으로 의학계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장기이식이 장기제공자의 부족으로 전혀 보급되지 못하는 한국의 실정에서 장기이식의 분야가 더욱 발전되고 수많은 환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여 각종 장기를 생산하고 장기이식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줄기세포를 응용한 21세기의 의학을 재생의학이라 하며 그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크다. 뇌질환연구센터의 연구과제 중의 하나인 인간신경줄기세포 분리와 응용은 이러한 재생의학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어 앞으로 그 전개와 발달이 크게 기대되는 연구분야이다.

인간 태아 뇌조직을 뇌이식에 사용하는데에는 윤리적, 종교적 그리고 로지스틱한 면에서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많으므로 인간태아에서 유래된 신경세포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세포의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불멸화한 인간신경세포이다. 이들 인간신경세포는 계속하여 증식할 수 있고, 각종 신경세포나 신경교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다분화 능력이 있으므로 뇌질환 환자에서의 뇌이식에 가장 이상적인 이식세포인 것이다. 뇌질환연구센터에서는 본인이 1998년 국제특허를 획득한 인간신경줄기세포주를 이용하여 뇌질환에서의 유전자치료와 뇌이식에 대한 연구를 전개하고 있다. 센터 소속 교수들은 이밖에도 각종 뇌질환에서의 신경세포사의 기전을 해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신경세포사를 방지하는 약물을 개발하고 뇌질환 치료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뇌질환연구센터는 매해 젊은 신경과학자를 위한 아주브레인 컨퍼런스(ABC)와 아주의대 신경과학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다.



# 성장호르몬의 허와 실

요즘 젊어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장호르몬 요법이 유행 아닌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병통치약으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에 대해 소아과 김순남 교수로부터 들어본다.

## 저신장 치료부터 노화방지까지

지난 30년 간 한국 성인의 평균 신장은 약 10cm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경제적인 수준의 향상과 여가의 활용 그리고 전반적인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어떤 인구 집단에서건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나 최근 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키를 자라게 한다고 알려진 성장호르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인간의 노화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과 치료법의 하나로 성장호르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다시피 하는 비만 치료제로도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의 일면에는 성장호르몬의 효과에 대해 과장되거나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으며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과장, 허위 광고에 이용되는 면도 없지 않다.

## 성장호르몬이란

성장호르몬은 사람의 뇌 한가운데 있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호르몬의 일종으로, 성장기의 어린이와 사춘기 때 많이 분비되어 성장을 일으키는 중요한 호르몬이다.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 외에 지방분해를 촉진하거나 탄수화물, 무기질, 전해질 등에도 영향을 주는 대사 효과도 있다. 정상적으로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조건으로는 깊은 수면, 운동이 있으며 특히 사춘기 급성장기에 가장 많이 분비되고 이후 서서히 분비량이 감소하여 30대 이후에는 분비량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 성장호르몬 질환과 원인

성장호르몬의 분비 이상에 의한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분비량이 감소하여 생기는 성장호르몬 결핍증은 키가 작고 둥근 얼굴에 비만이 특징이다. 반대로 성장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경우는 뇌하수체 종양에 의한 것으로 거인증과 성장기 이후에는 얼굴과 손발 끝이 커지는 말단비대증이 올 수 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의 원인으로는 과거 난산에 의한 산소부족으로 뇌하수체가 손상되어 생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분만에 따른 위험이 많이 줄어든 요즘 외상이나 뇌종양 수술 혹은 방사선치료를 받은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아직까진 멀기만 한 고가의 약제

1980년대 이전에는 성장호르몬 결핍에 의한 저신장의 치료제로 사체에서 뽑아내 정제한 성장호르몬을 사용했으나 치료 용량에 비해 소량 밖에 얻을 수 없어 매우 가격이 비싸고 감염의 우려가 있어 사용이 중지되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유전자 재조합방법으로 만들어진 성장호르몬이 사용되기 시작하여 비용을 줄이고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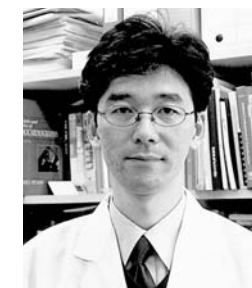
그러나 아직까지는 고가의 약제이며 현재 성장호르몬 결핍증으로 확진되었거나 여자 아이에서 염색체 이상으로 발병하는 터너증후군, 만성신부전에 의한 저신장에 한하여 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장호르몬 투여 방법은 자기 전 일정한 시간에 주사하며 용량과 투여횟수는 병의 원인과 결핍의 정도에 따라 매일 주사하는 방법 혹은 1주일에 2~3회 주사하는 방법이 있다.

## 허황된 기대는 버려야

성장호르몬이 갖고 있는 지방분해 작용을 이용하여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하나, 그 효과는 일시적이며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해야만 한다. 또한 성장호르몬 투여 후 근육량이 증가하여 힘이 세지는 효과가 있어 노화 방지제로도 알려져 있으나, 이 역시 일시적이며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염려스럽다.

성장호르몬의 부작용으로는 혈당상승, 부종, 갑상선기능저하, 뇌압상승, 대퇴골의 이상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장호르몬은 도깨비 방망이 같이 키를 푹푹 늘려주는 약도 아니며 불로장생을 위한 약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장호르몬의 효과에 대한 과장과 잘못된 기대를 버리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절히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김 순 남 교수 / 소아과학교실

비뇨기와 최정보 교수가 잊지 못하는 환자 이야기

# 요실금 환자의 슬픔과 행복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요실금 만큼 억울한 것도 없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심해지는 이 질환은 일상적인 생활도 꺼려지게 되어 수많은 어머니들을 우울증에 빠뜨렸다. 밖에 나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평소 즐기던 운동을 하는 것도, 가족들을 대하는 것도 힘들게 한다. 예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된 우리에게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요실금은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누님, 나의 어머니의 고통이다.

나를 찾아오는 요실금 환자들의 한결같은 불만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싫어지는 것이며 심한 경우에는 불안, 초조, 대인 기피증세까지 초래한 심각한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 할 정도이다.

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질까? 그것을 다름 아닌 「냄새」 때문이다. 팬티나 패드에 적셔져 있는 소변 냄새가 타인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위생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심리상태가 더 큰 정신적 충격이 아닐까?

1년 전 자녀를 5명이나 분만하셨던 할머니 한 분이 오셨다. 보통은 진료실 문을 닫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는데 이 분은 들어 오시자마자 굳이 문을 닫으려고 하시며 부끄러워하셨다. 자리에 앉아 처음에는 얼굴을 붉히며 내 질문에만 답하시다가 불편하신 점을 이야기하시며 두 눈을 반짝거리며 눈물을 흘리셨다.

진찰실에서 검사한 결과는 내가 예상한 대로 골반저근의 약화로 방광이 질 내로 내려오는 정도의 방광류와 이에 동반하여 요도의 움직임이 심한 것으로 관찰되었고, 방사선 검사에서도 방광의 움직임이 정상보다 심한 「복압성 요실금」으로 생각되었다. 요역동화검사에서도 복압이 약간만 증가하여도 소변이 자제되지 않고 밖으로 새나오는 비교적 중증의 요실금 환자로 진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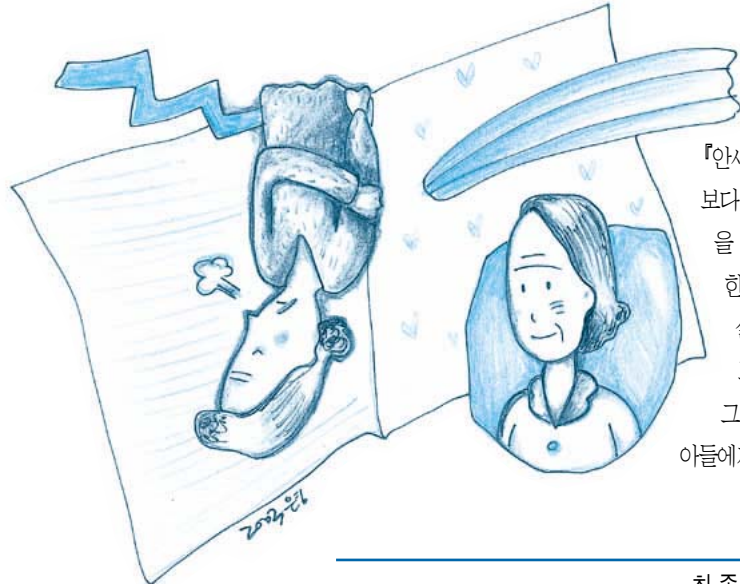
수술만은 싫다고, 다른 방법은 없냐고 하는 할머니에게 반 강제로 수술을 권유하여 겨우 동의를 얻었다. 다른 환자들을 대할 때와는 다르게 내 어머니를 대하는 것 같았고 또 한편으로는 「내 어머니도 저런 증상으로 괴로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수술하는 날 아침에 「걱정마세요!

란 말 한마디에 너무도 좋아하시던 그 분. 다음날 수술 후 첫 소변을 보시고 어린애처럼 좋아하시던 얼굴이 생각난다.

퇴원 일주일 후 외래로 오신 그 분이 나에게 한 첫 인사는 「안해서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도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것보다 더 좋았던 순간이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의사란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오랜만에 느끼게된 보람이었고 카타르시스였다. 한달 뒤 정기적인 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은 그 분은 이제는 마실도 다니고, 운동도 다니신다면서 친구들이나 손주들을 만날 때에도 자신감이 생겼으며 만족감을 표시하셨다.

그날 저녁 나는 퇴근을 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어머니도 차마 아들에게 말씀 못하시고 고민하시는 게 아닐까?」

최 정보 교수 / 비뇨기과학교실



# 나의 영원한 연구과제는 ‘심장 되살리기’

**비** 리릭~~.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호흡기에 찍힌 번호를 확인하니 응급실이다. 전화기를 들면서 시계를 보니, 오전 3시 17분. 심혈관계 집중치료실 중환자 때문에 늦게 귀가했는데... 두 번의 짧은 심호흡이 간 후 전공의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들려왔다. 62세 남자, 2시간 전부터 시작된 흉통, 혈압 80/50mmHg, 심전도에서 ST분절의 상승...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쇼크다. 응급처치와 응급 관동맥 시술 준비를 지시하곤 전화를 끊었다.

환자는 심근경색이었다. 심근경색이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심장이 과사되는 질환이다. 이러한 경우 막혀있는 혈관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주는 것이 심장의 과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치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의사는 당직 방사선사, 간호사와 한 팀이 되어 신속하게 시술을 시행해야 한다.

내가 전공하는 중재시술 분야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직접 촬영, 좁아지거나 막힌 부분을 찾아내서 풍선이나 스텐트 등의 다양한 기구로 혈관을 넓혀주어 흉통을 없애주고 심장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전의 연구가 주로 정확한 질병의 진단과 혈관 확장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 질병 약화의 예측과 다양하고 적절한 치료로 얼마나 심장의 기능을 보존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영화에서처럼 인간의 몸 속으로 들어가 질병을 치료한다는 「마이크로 탐험대」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의 의학수준은 3mm 정도 굵기의 심장 혈관 내로 초음파가 부착된 가느다란 철사를 넣은 후,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무엇 때문에 좁아졌는지, 심지어 앞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나의 연구는 이러한 혈관 내 초음파를 통하여 병든 혈관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발생할 수 있는 심장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일련의 연구를 통해 같은 정도의 협착이라고 하더라도 심장으로 가는 혈관 내에 지방 함유가 많은 동맥경화반이 존재할 경우,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 후 심장근육 또는 미세혈관의 손상이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특히 협착 부위에 혈전이 존재할 경우 그 정도가 심할수록 심장기능에 손상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심장기능의 악화를 보인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현재는 최근 개발된 특수 기구를 통해 이러한 심장의 손상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사된 심장을 살리기는 어렵다. 전세계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유전자 복제로 태어났다는 아이에 대하여 과학적 윤리적 논쟁이 치열한 지금, 의학분야에서의 화두는 단연 세포이식이다. 재대혈, 근육, 골수 등에서 얻은 세포를 몸에 주입하여 손상된 장기를 회생 또는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심혈관 질환에서도 2001년도에 처음 심근경색으로 죽어있는 심장 부위에서 분열하는 세포를 발견한 이후, 외부에서 세포이식을 통해 죽은 심장근육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품게 되었다. 자칫 공상과학 소설이나 나오는 얘기 같지만 실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예측하고 발생시에 심장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과사된 심장을 다시 살려내는



▲ 심도자실에서 스텐트 시술 중인 최수연, 탁승제 교수.

것, 이것이 나의 영원한 연구과제가 아닐까 싶다.

중재시술 분야에서의 여성연구자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듯 방사선을 통해 혈관을 직접 보면서 시술을 해야 되므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 10kg에 달하는 납으로 만든 옷을 입어야 한다.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이 스스로 기피하기도 하고, 체력적인 소모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 여성을 제한하기도 한다. 나 역시 처음엔 납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시술을 하면 녹초가 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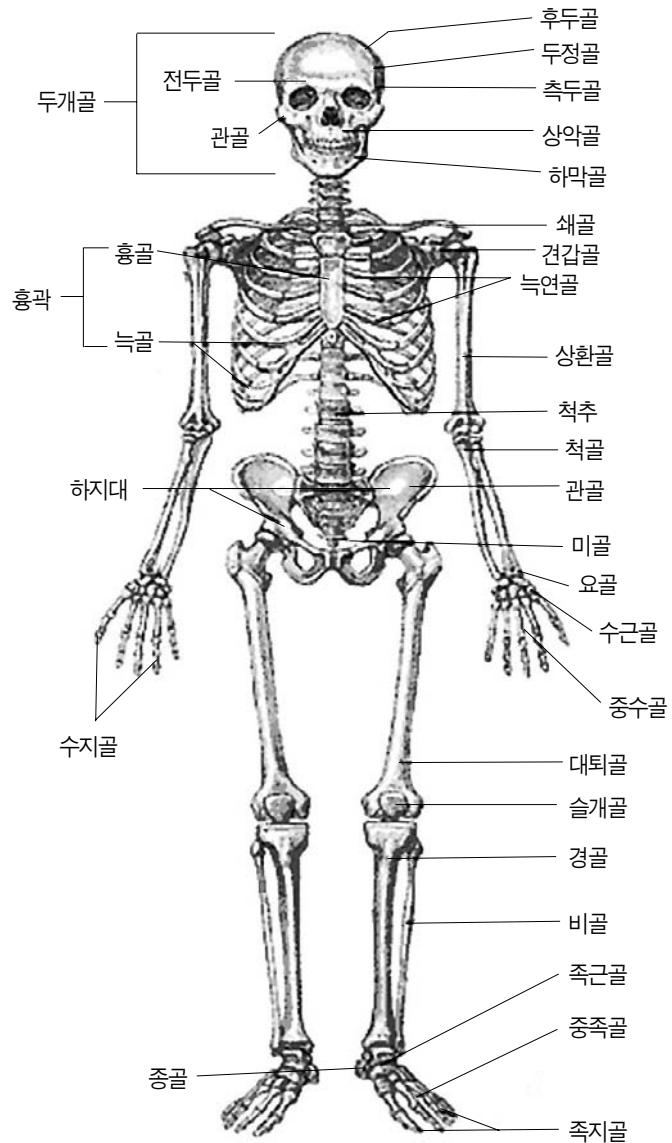
이런 나에게 친구들은 왜 굳이 응급환자도 많고 힘든 일을 하는가 물었다. 왜일까? 학생시절엔 심장마비나 쇼크로 응급실에 온 환자에게 정확한 판단과 빠른 처치로 생명을 구하는 순환기내과 선생님들의 모습이 멋있게 보였다. 물론 이제는 그 멋진 모습 뒤에 가려진 면면들, 즉 잠시라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으며 급박하게 진행되는 환자 상태로 인해 때로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이해를 받기 어렵다는 점들도 다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죽음의 경계에 다다른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그 순간, 모든 괴로는 사라지고 의사로서의 보람과 기쁨만이 남기 때문에 오늘도 무거운 납 옷을 걸치고 심도자실로 향하는 것이 아닐까!

최 수 연 교수 / 순환기내과학교실

# 뼈 이야기

「움직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불리는 뼈는 인체를 지탱하고 장기를 보호하며, 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몸의 중요한 조직이다. 임신 5주 뒤부터 형성되어 25~30세에 강도가 최고치에 달하며, 나이가 들면서 조골세포의 활동력이 떨어지면서 전체 골량이 줄어들게 된다. 뼈가 약해져 생기는 「골다공증」을 위주로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로부터 뼈 이야기를 들어본다.

## 뼈의 구조



## 칼슘 참고, 혈액공장인 뼈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뼈의 수는 무려 206개나 되는데, 생김새와 크기는 모두 다르다. 가장 크고 길다란 뼈는 대퇴뼈(38~41cm)이고 가장 작은 뼈가 귀속에서 청각을 담당하는 뼈(이소골, 3.3mm)이다.

뼈는 우리 몸의 골격을 이루며 집의 기둥이나 대들보 같이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이 뼈에 근육과 인대가 붙어 있어 몸의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몸을 지탱하는 것 외에 뼈의 중요한 역할은 칼슘을 저장하는 것. 뼈는 인체 칼슘의 99%, 인산의 90%, 그리고 구리, 코발트 같은 미량의 원소들을 하루 종일 이동시킨다. 뼈는 내부의 골수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피 속의 세포들을 생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뼈는 무기질(칼슘, 인 등)과 유기질(콜라겐 등)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기질은 뼈의 견고함과 강도를 유지해주고, 유기질은 뼈에 유연성을 주어 어느 정도의 탄력성과 변형성을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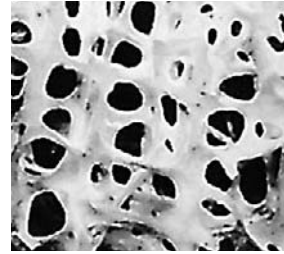
## 뼈의 구조

뼈는 겉 부분과 안 부분이 구조가 다른데 표면 부위는 뼈석회가 두껍고 단단하여 치밀골이라 하고, 내면 부위는 뼈석화가 비교적 엉성하게 연결되어 있어 해면 모양이 보인다하여 해면골이라 한다. 치밀골은 단단하기 때문에 신체를 지지하는 지주가 되며, 해면골은 체액과 접촉하는 넓은 표면을 갖고 있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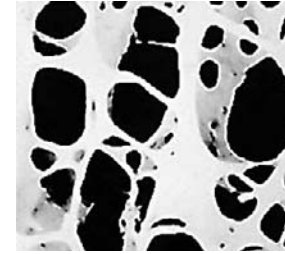
## 뼈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

뼈에 생기는 질병은 골절, 골다공증, 골수염, 골수암 등이 있으며 이중 뼈가 약해져 생기는 질병인 골다공증(骨多孔症, osteoporosis)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 질병은 뼈를 구성하는 무기질과 유기질이 비슷하게 감소하여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게 된다.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



정상인의 척추단면



골다공증 환자의 척추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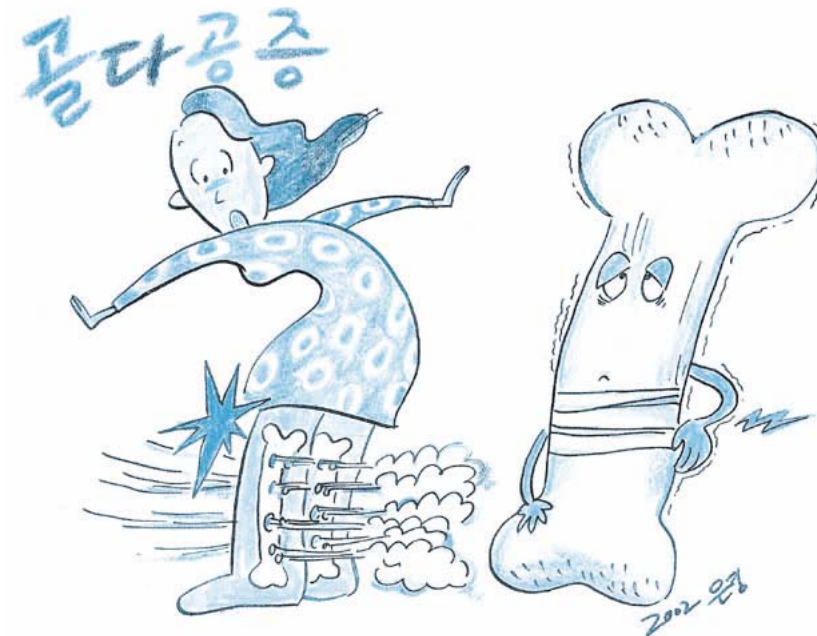
펴보면 뼈에 작은 구멍들이 정상보다 많이 생기고 구멍의 크기가 커져서 골다공증이라는 병명이 붙었다. 마치 무를 잘라보면 구멍이 숭숭 나있는 것을 연상하면 된다.

## 골다공증의 증상

골다공증 자체로는 증상이 없지만 진행되면 골절과 연관된 증상이 나타나는데, 허리 골절로 인한 허리통증, 허리가 굽고 키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며, 대퇴, 손목 부위 등은 골절이 발생시 구체적 증상이 나타난다.

## 골다공증 예방법

50세 이상의 여성 및 60세 이상의 남성은 1년에 1회 골밀도 측정을 해보는 것이 좋으며, 젊은 사람이라도 조기 폐경 되었거나 가족 중 골다공증 환자가 있는 경우, 골절을 경험한 경우, 뼈에 영향을 주는 약제(부신피질 호르몬제 등)를 복용하는 경우는 50세 이전이라도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이 되더라도 너무 두려워 할 필요는 없는데 최근에 여러 효과적인 약제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1일 1회 1알 복용으로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골절을 예방하는 약제가 처방 가능하다.



##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우선 뼈의 구성성분이 되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여야 한다. 칼슘이 많은 음식은 우유, 치즈 등의 유제품과 두부, 녹황색 야채, 견과류, 생선 등이 있다. 이런 음식의 섭취가 어렵다면 칼슘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운동을 통해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야 하는데, 중력을 감내하는 운동인 걷기, 달리기 등과 아령과 같은 적절한 무게 운동 등을 통해 뼈를 강하게 할 수 있다. 햇빛을 쬐이면 피부에서 비타민D가 합성되어 뼈의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므로 야외에서 일광욕을 하면서 하는 운동은 금상첨화인 셈이다.

## 뼈를 약하게 하는 것

대표적인 것으로 흡연, 음주, 카페인을 들 수 있다.

폐경이 시작되어서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한 여성,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은 사람, 햇빛을 싫어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살아 비타민D가 부족한 사람,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 몸이 작고 마른 사람은 뼈가 약해지기 쉽다. 또한 스테로이드, 갑상선호르몬제를 오래 복용한 사람도 뼈가 약해질 수 있다.

성경구절에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말씀하시며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걸 보면 뼈의 중요성을 알 수 있고, 우리 속담에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뼈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나온 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가문이나 가풍이 곧고 든든하게 서야 좋은 집안이듯이 뼈가 튼튼하고 곧게 서야 건강할 수 있다.

## 우리 모두 뼈가 튼튼한 사람이 됩시다 !!!

정 윤 석 교수 /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 골다공증 진료안내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가 골다공증 전문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031-219-5954로 문의.

# 처음의 마음가짐을 잊지말자!

고등학교 1학년, 한참 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적에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10여년, 그리고 지금 뜻내기 의사가 되어 있다니... 언제나 느끼는 세월의 무상함을 또 한번 느낀다.

언제나 처음의 마음가짐을 잊지 말자! 내가 왜 의사가 되려 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변해 가는 나를 채찍질하기도 하고 다독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갖자

**고교 시절 유난히 생물을 좋아해서** 그쪽 방면의 공부를 하고 싶다고 어렵듯이 진로를 정하던 내가 우연히 A. J. 크로닌의 「성체」와 「천국의 열쇠」를 읽게 되었다. 천국의 열쇠에서의 치섭 신부가 다른 종교에 보이던 너그러움과 무지의 땅 중국에서 펼치던 선교활동, 성체에서 보이던 한 의사의 생애를 통해 「의사」란 직업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청소년 시기의 일종의 자아, 삶의 목표, 이상 뭐 이런 것들을 그 두 책을 통해 생각해 보고 삶의 계획을 세웠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의대에 들어와** 졸업을 하고 인턴이 되었고, 이제 레지던트가 된다. 그 사이 술하게 받아왔던 「왜 의사가 되려하냐?」는 질문에 언제나 나는 공통적인 대답을 할 수 있었다. 앞에서 말한 두 권의 책을 앞세워서... 그렇지만 그 대답에 나의 그 청소년 시절의 치기와 정말 의사가 되려 했던 마음가짐이 얼마나 담겨져 있었을까? 이번 레지던트 임용 실기 시험 질문 때 대답은 마음의 허공이 아니었을까 싶다. 「또 이 질문이군!, 난 언제나 하던 대답이 있지.」라면서 유용(?)하게 두 권의 책을 써먹었던 것은 아닌지...

**「성체」에서 주인공이었던 의사는** 처음에는 남을 도울 줄 알고 항상 열심히 일하는 의사였지만 현실 속에서 처음 자신의 모습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변해간다. 일과 환자보다는 돈과 권력에 맛을 들이게 되고, 결국 자신의 아내가 죽으면서 그런 것들의 무상함을 깨닫고 다시 처음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나 역시



이 책의 주인공처럼 어떤 의사가 되겠다던 초심은 사라지고 그저 지금의 일에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에게 있어서의 스스로의 외침이다. 누구나 세월이 지나면서 변해가고 그리고 나도 변해있지만, 언제나 처음의 마음가짐을 잊지 말자는 것! 가끔 내가 왜 의사가 되려 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변해가는 나를 채찍질하기도 하고 다독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살아야겠다.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의대생,** 의사의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수험생. 지금 의사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 처음의 마음을 잊지 마시라! 처음의 당신의 의사가 무엇이었던 간에...

김 현 아 인턴

#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NEWS

## 의료원 ▶▶▶▶

### 의료원 규정류 제정 및 개정 - 홈페이지에 「규정집 게시판」 신설

의료원은 최근 의료원 교원인사규정과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수가위원회 운영규칙 등 총 3건을 새로 제정하고,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의과대학 주임교수와 병원 임상과장 임용규칙, 직무분장규칙, 위임전결규칙 등 총 4건을 개정하여 공포했다.

새로 제정된 의료원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면 의과대학 교원인사규칙이 규정으로 바뀌고 교원의 승진임용 시기가 기존의 4월1일에서 3월1일로, 10월1일에서 9월1일로 변경되며 승진 및 재임용 절차가 변경됐다. 또한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에서는 의과대학 특별임용교원 인사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특별임용교원의 구분을 석좌교수, 대우교수 외에 강의교수, 연구교수, 진료교수를 추가 신설키로 했다. 수가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기존의 진료재료위원회를 폐지하고 진료재료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하여 수가위원회를 신설

키로 했다. 개정된 의과대학 주임교수와 병원 임상과장 임용규칙에서는 주임교수의 임기가 4년, 1회 2년 연임 가능으로 변경되고, 주임교수와 임상과장의 자격이 강화되며, 해임 해당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된다. 또한 의료원 직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징계위원회에 관한 권한을 총장에서 임면권자로 변경하고, 현 제도를 반영하여 초임호봉 사정기준표와 승진소요연한 기준표를 변경했다.

한편, 의료원은 지난 2월7일부터 홈페이지 교직원게시판 자료실에 「규정집 게시판」을 신설하여 교직원들이 제·개정된 규정류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은 교직원만 가능하며 규정에 관한 문의사항도 개별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Q&A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 간호사 인턴십 합격자 교육



의료원은 2003학년도 신규임용 예정인 간호사 인턴십 합격자 72명을 대상으로 1월24일과 25일 양일간 별관 소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의료원의 이념 및 조직체계 ▲직원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각 부서의 업무 이해 ▲진찰서비스 향상 과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 의료원 홈페이지에 신약정보 신설

의료원 홈페이지에 신약정보 코너가 신설됐다.

신약정보 코너는 병원 주변의 약국에 본원의약품 변동사항에 관한 정보를 즉각 제공하고, 처방관리실과 의료진과의 유선 연락횟수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규약품과 품질약품에 관한 소식을 게재할 예정이다.

### 의료원, 부서장 상향평가 실시

의료원은 지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2003학년도 부서장 상향평가를 실시했다.

전통적 하향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서장의 역할 재정립 및 리더쉽 역량 배양을 위해서 실시된 것으로, 팀장, 기사장, 행정과장 등 31명을 대상으로 공정성, 관리능력,

도덕성, 업무태도, 인간관계 등 5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상향평가 평가자는 의료원에 1년 이상 재직중인 1,177명이며, 의료원은 이 평가자를 대상으로 2월4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별관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안순일 인사복지팀장은 「상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실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실험마트 확대 운영

병원 지하 1층에 위치한 실험마트는 지난 2월10일부터 365일 무휴 24시간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음료, 냉장, 냉동식품, 약세서리, 라제리 등 취급품목을 확대했다.



의과대학 ▶▶▶▶

2002학년도 의학부 히포크라테스 선서식 및 간호학부 우수상 시상식 개최



▲ 2002학년도 학위수여식

의과대학은 2월21일(금) 의학부 히포크라테스 선서식과 간호학부 성적 우수상 시상식을 각각 개최했다.

이날 2002학년도 학위수여식에 앞서 오전 11시 송재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호학부 성적우수상 시상식에서는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상을 수상하는 정규과정의 조진경 학생과 특별과정의 김미경 학생을 비롯, 총 10명의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 제10회 히포크라테스 선서식

이어서 2시에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학위수여식에서는 의학부 수석 졸업자인 김성권 학생과 간호학부 수석 졸업자인 채미영, 이현주 학생이 총장상을 수상했고, 3시에는 의학부 졸업생 39명이 아주대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제 10회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을 거행했으며, 김성권 학생을 비롯하여 8명의 학생이 성적 우수상을 수상했다.



▲ 간호학부 성적 우수자 시상식

피부과학교실 이성낙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이성낙 교수가 지난 22일 정년퇴임과 관련하여 지난 28년간 의학발전과 후학양성에 공헌한 바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올해 퇴임을 맞는 이성낙 교수는 66년 독일 뮌헨 의대를 졸업후 연세의대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비롯하여 재단법인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초대원장, 대한피부연구회

회장, 미국 피부과학회 국제위원, 해관 오승근 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괄목할만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의학자로서 이성낙 교수는 지난 83년 국내 처음으로 연세의료원에 베체트병 특수클리닉을 개설하여 피부과내 특수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처음 시작했으며, 96년 세계 최초로 베체트병의 원인이 단순 포진 바이러스임을 확정한 바 있는 유명한 의학자다.

이성낙 교수의 정년퇴임식은 오는 3월29일(토) 4시 COEX 컨벤션센터에서 국제학술강연회와 함께 거행되며, 이 교수는 아주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할 예정이다.

제5차 내과부 연수강좌 개최 안내

아주대학교병원 내과부는 일차 진료에 도움이 되는 최신 지견들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자 연수강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3월 23일(일) 08:00~15:00
- 장 소 :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
- 대한의사협회 평점 6점 인정
- 사전등록기간 : 3월17일(월)까지
- 등록비
  - 일반의 / 전문의 / 개원의 사전등록 4만원(당일등록 5만원)
  - 전공의 / 간호사 사전등록 3만원(당일등록 4만원)
- 문 의
  - 아주대학교병원 내과부
  - Tel : 031-219-5100
  - Fax: 031-219-5109

병원 ▶▶▶▶

환자를 위한 팩시밀리 서비스 확대

병원은 지난 1월29일부터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팩시밀리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환자 및 보호자들은 병원 지하 2층의 서비스센터는 물론 원무팀 어느 곳에서나 팩시밀리를 사용할 수 있다.

경주 새빛병원 경영진단 실시



병원은 지난 2월4일 별관 5층 소회의실에서 새빛병원 경영진단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경영진단은 아주대병원과 협력병원 관계인 새빛병원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병원은 「새빛병원경영진단팀(김영배 QI팀장, 기획팀 김승권 과장, QI팀 문천호 파트장)」을 구

성, 지난 2002년 12월9일부터 2003년 1월18일까지 6주에 걸쳐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경영진단은 2001년 4월 개원 이후 문제점, 조직, 공간, 수입창출, 원무/보험, 회계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친 진단 및 대안제시로 이뤄졌다.

한편, 보고회에 앞서 새빛병원 김영길 이사는 홍창호 병원장에게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협력병원 중간관리자 연수교육



병원은 지난 1월28일 별관 5층 소회의실에서 「의료정책변화」를 주제로 협력병원 중간관리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아주대병원, 국내 처음으로 고교생 대상 심폐소생술(CPR) 실시

아주대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5개월에 걸쳐 고등학교 학생 전원에게 심장정지시에 사용하는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11일부터 6월까지 매주 화, 목요일 2회씩 효원고등학교(수원시 인계동 소재)를 방문,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교육 첫날인 지난 11일 응급의학과 조준필 교수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및 이론 교육」을 약 1시간 실시한 후, 4개조로 나누어 응급구조사들과 함께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받은 학생은 30명이다.

교육을 실시한 조준필 교수는 「이번 교육은 전교생 모두가 주변에



동수원병원 등 총 11개 협력병원 중간관리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연수교육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 2003년 의료정책의 변화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대책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외과전문간호사 및 응급전문간호사 교육 수료식 개최

병원 간호부는 외과전문간호사 및 응급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박은주, 김계언 간호사가 1월24일 금요일에 개최된 외과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수료했으며, 박수정 간호사 외 4명의 본원 간호사와 김문정(굿모닝병원), 이명숙(고대안암병원), 채금옥, 정영주, (안양병원), 장혜진, 서경화(안성의료원), 오금임(오산노인전문병원), 김진선, 오명선(산재의료관리원 대전중앙병원) 등 총 14명이 지난 1월 27일 응급전문간호사 과정을 수료했다.

누군가 심장이 멈추는 응급상황에서 완벽하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다른 학교 및 기관, 일반인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심폐소생술을 확대 보급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을 받았던 효원고등학교 김성태 교장도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어 시작하게 됐다」면서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익히도록 하여 매년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도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마티스 공개강좌 안내**  
-강직성 척추염-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에서 류마티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공개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3월27일(목) 오후2시~3시

■ 장소 : 아주대병원 지하1층 대회의실

■ 프로그램  
· 강직성 척추염이란? 서유진 교수  
· 강직성 척추염의 치료 서창희 교수  
· 질의 응답

■ 문의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 031-219-5902)

**도·서·기·중**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학교실 박해심 교수가 국내 학회지 「알레르기」 외 11권을 의학문헌정보센터에 기증했다.

**아주사회사업기금**

**후원구좌 가입 안내 및 소식**

아주대병원 사회사업팀에서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및 재활용품 지원, 지역사회내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아주사회사업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지로계좌번호 7657236
- ▶ 은행무통장 입금  
제일은행 692-20-124767  
국민은행 272-21-0223-177  
농협 116-02-183701  
한미은행 542-15453-273
- ▶ 예금주 아주사회사업기금

**신문. 방송에 보도된 아주대의료진**

**신문(News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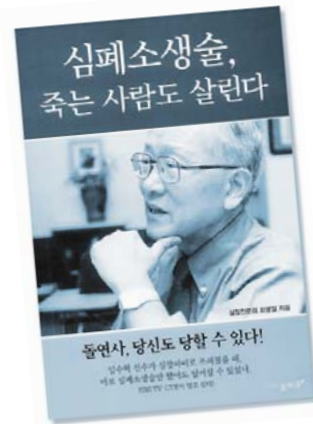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1.16	국민일보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	희귀병 눈물겨운 사투-태아 알코올중후군
1.21	경기일보	호흡기내과 황성철 교수	이유 없는 기력감퇴...건강 '적신호'
1.21	경인일보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살 빠려는 흡연 '효과없어요'
1.29	조선일보	소화기내과 조성원 교수	업그레이드 암치료-간암
1.29	중부일보	소화기내과 조성원 교수 순환기내과 최병일 교수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	설 음식 탐나나...NO NO
1.30	국민일보	소아과 김순남 교수	희귀병 눈물겨운 사투-페닐케톤뇨증
2.4	한국일보	피부과 이성낙 교수	브라보 시니어, 은퇴후 벤처기업인 변신
2.5	조선일보	피부과 강원형 교수	겨울이면 사과처럼 붉어지는 얼굴...
2.5	조선일보	외과 박희봉 교수	업그레이드 암치료-유방암(수술전문의)
2.8	조선일보	순환기내과 최병일 교수	「심폐소생술, 죽는 사람도 살린다」 출간
2.12	문화일보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방사선 진단기기 '급속 진화'
2.12	조선일보	산부인과 유희석 교수	업그레이드 암치료-자궁경부암(수술전문의)
2.13	국민일보	신경외과 조기홍 교수 신경외과 윤수한 교수	희귀병 눈물겨운 사투-척수공동증
2.12	중부일보	외과 서광욱 교수	병을 알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대장암
2.12	경향신문	소화기내과 이기명 교수	이말 정말 맞나요-B형간염 음식물감염 거의 없어
2.12	조선일보	정형외과 김현정 교수	내가 건강 전문가! '권투 예찬' 전문의 코멘트
2.13	경인일보	응급의학과 조준필 교수	국내 첫 심폐소생술 학교교육

**방송(Broadcasting)**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2.5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신과 조선미 교수	턱으로 본 심리상태 (인터뷰)

일반인들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 본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죽는 사람도 살린다**



최병일 지음  
도서출판 물푸레  
248면  
1만원

5년 전 「당신도 죽을 사람 살릴 수 있다」는 책을 펴냈던 아주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최병일 교수가 심폐소생술에 대해 실제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심폐소생술, 죽는 사람도 살린다」를 최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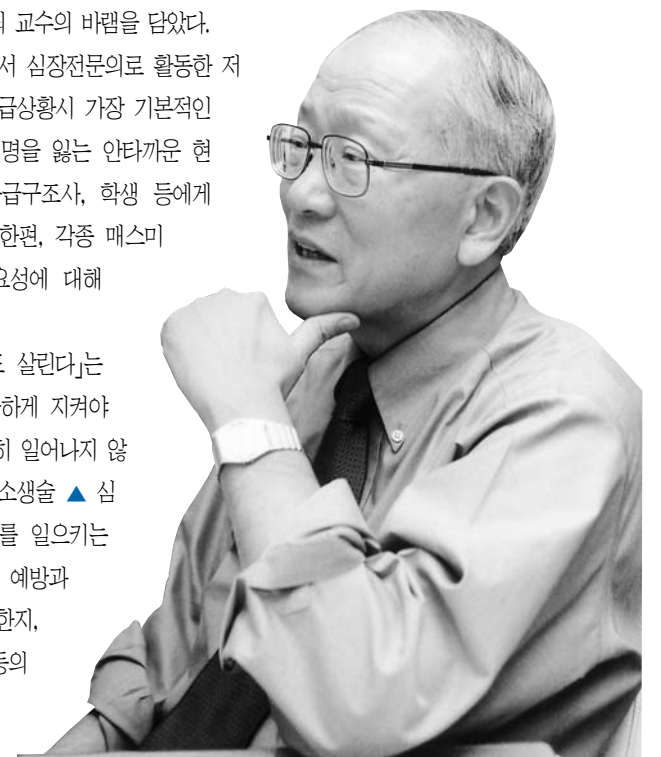
저자는 쓰러진지 10분이 지나면 뇌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황금의 10분」이라고 설명한다. 돌연사는 유명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며, 모든 심장병 환자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가 돌연사로 사망한다고 지적하면서, 심장 정지로 쓰러질 당시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이들 중 30% 이상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한국이 인구 당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는 것도 사고 순간 응급조치를 제때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구급처에 최소한의 구급장비와 심폐소생술을 갖춘 요원이 있다면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미국에서는 구급대원은 물론, 고등학교나 일반 스포츠센터에서도 인명구조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는 무방비 상태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은 심장병 환자를 두고 있는 가족은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최 교수의 바람을 담았다.

65년 도미하여 30년간 미국에서 심장전문의로 활동한 저자는 귀국 후 국내에서 각종 응급상황시 가장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공무원, 소방관, 응급구조사, 학생 등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있다.

책, 「심폐소생술, 죽는 사람도 살린다」는 ▲ 왜 심폐소생술인가? ▲ 소중하게 지켜야 할 심장 ▲ 돌연사는 결코 돌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 죽는 사람 살리는 심폐소생술 ▲ 심장병 증세의 진단법 ▲ 돌연사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심장병 ▲ 동맥경화의 예방과 치료 등 심폐소생술이 왜 중요한지,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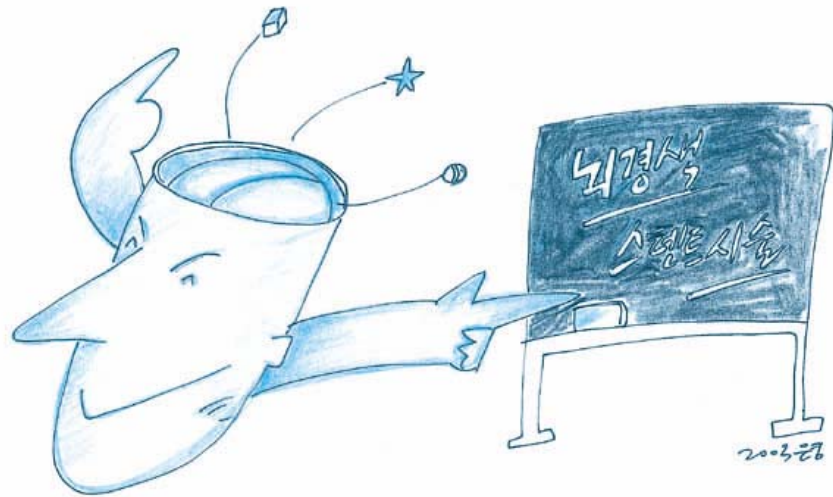


오은영 / 홍보팀



##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뇌경색 환자에서 스텐트 시술이 가능한가요?



**Q** 72세의 아버님께서 5년 전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활동에는 지장이 없으나 말하는 것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최근 5개월 전부터 뒷머리가 빠근하여 밤잠을 깊이 못 들고 계십니다. 스텐트 시술로 아버님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분의 아버님은 5년 전 뇌경색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뇌경색의 치료는 혈액 순환제의 사용 및 고위험인자를 피하는 등의 방법이 보편적이며 일부 환자에서 수술이나 스텐트 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뇌경색은 심장에서 혈전 등이 떨어져 나와 머리 혈관을 막을 수 있고 경동맥이 좁아져서 혈류가 지나가지 못해 생기는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각각의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며 뇌경색의 스텐트 시술 역시 모든 환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뇌혈관이나 경동맥의 국소적 협착증

에서 치료 효과가 높습니다. 치료의 적응증은 뇌경색의 원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현재 말이 어눌하고 머리가 빠근한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에 입원하였을때 뇌혈관 전문의의 지문을 받아 보셨으면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그전에 찍었던 MRI 등의 자료를 복사하여 외래를 방문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신용삼 교수)

신경외과 외래 031-219-5664

### 코피가 자주 나오

**Q** 저는 23살의 청년입니다. 3개월 전부터 코에서 코피가 자주 납니다. 가끔은 어지럼증이 심해서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혹시 코피를 자주 쏟아서 빈혈이 생긴 건 아닌지, 다른 병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A** 사람의 코에는 체외의 차가운 공기를 37°C 정도로 데우기 위해서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즉, 모세혈관이 없이 동맥에서 정맥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충격에도 출혈이 쉽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이 없이도 잦은 출혈을 보이는 경우는 대개 건조한 환경에 있거나, 자기 전에 코를 후비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서 많다고 합니다. 코피로 인한 빈혈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어지럼증이 빈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코 속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딱지가 미처 떨어지기 전에 또다시 코피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분간 가습기를 집안에 켜놓고 지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습니다. 물론 드물게 코 속에 출혈을 일으키는 병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의원을 찾아가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양혈액내과 박준성 교수)



종양혈액내과 외래 031-219-5990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독자 여러분께 좀 더 유익한 의학정보지로 다가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참여는 보다 나은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건강 Q & A / 잘못된 의학상식

궁금해 하시는 건강문제에 대해 전문의에게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문의해 주시면 만족스러운 상담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우리 병원 어떻습니까

아주대병원 이용에 있어 느끼신 점 혹은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최대 200자 원고지 5매(A4 3분의 2장 정도) 이내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보다 좋은 병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아주대의료원 주변에서 좋은 일을 하는 분, 따뜻한 사연이 있는 분을 아주대의료원소식에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제보 · 원고 보내주실 곳

- 전 화 031-219-5368 · 팩 스 031-216-6386
- 주 소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교의료원 홍보팀 (442-721)
- 이메일 apr@ajou.ac.kr

## 내게 새 생명을 주신 분들

**내**게 젊음과 꿈을 뺏아 간 그 놀이 찾아 온건 벌써 12년 전이다. 만성 신부전증. 이 병에 무지했던 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장을 거부반응으로 8개월 만에 잃고, 투석생활로 짧은 날들을 버텨 왔다. 서울로 투석을 받으러 다녔던 나는 그 무렵 고혈압으로 고생을 했었다. 몇 차례의 입원에 도 불구하고 좀처럼 좋아지지 않아 집 가까이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김흥수 선생님을 찾았다.

사실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의사 선생님들은 권위적이고 친근감이 없었다. 하지만 김흥수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다. 부드러운 미소와 친절한 상담. 이것이 내가 아주대학교병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날 상담으로 바로 아주대학교병원 투석실로 옮기고 높았던 혈압도 차츰 안정을 되찾았다. 일년에 한번은 꼭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이전 병원에서는 건강이 안 좋았다. 하지만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옮기고 나서는 정상인 못지 않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건강한 투석생활을 보내면서 내 사업도 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와 결혼해 준 집사람과의 사이에서 나를 닮은 잘생긴 아들 녀석도 태어났다.

2003년 새해 첫 달에 내게 기회가 찾아왔다. 사실 내게 있어 세 번째 기회였다. 어머니의 신장이식 실패 이후 사랑의 장기기증분부를 통해 또 한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마저 다시 떼어내고 말았다. 그 이후 새 삶을 위한 이식의 기회는 내게는 안 올 것 같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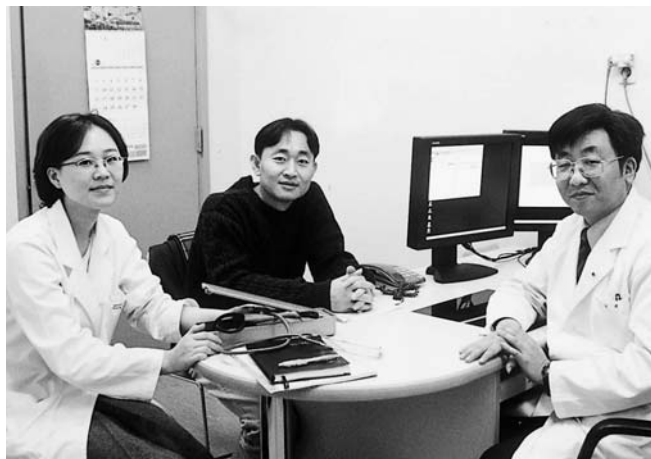
항상 그것이 마음 한 구석에 그림자로 남아 있었는데 내게도 다시 기회가 온 것이다. 뇌사자의 신장이식 기회가 내게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만나 뵈게 된 외과 오창권 선생님, 항상 밝은 웃음으로 환자를 돌보시는 그 분을 만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의 실패로 두려움도 없진 않았지만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입원을 하게 되었다. 마취에서 깨어난 내겐 좋지 않은 소식뿐이었다. 소변량이 수술 직후 많았다가 줄어든 것이다. 불안하고 수술한 것을 후회하는 내게 오창권 선생님은 포기란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일일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던 그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지면에 고백하지만 그 때

내겐 정말 절망 뿐이었다.

좋아지리란 믿음에 내 모든 걸 선생님에게 맡기고 호전되기를 기다렸다. 일주일 만에 다시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점점 이식된 신장이 적응되는 것 같았다. 병실에 오셔서 호전되고 있는 상황을 같이 기뻐해 주시며 춤추듯 살짝 움직이시던 몸 동작은 다른 병원에서선 결코 볼 수 없던 선생님의 진심어린 관심 같았다.



▲ 외과 진료실에서 (우로부터 오창권 교수, 윤택중님, 김지혜 장기이식코디네이터)

퇴원 결정을 하시고 나가시는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날 것 같던지...

이식수술을 받기까지 상담해 주신 김지혜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님, 건강한 투석생활을 하게끔 도와주신 신장내과 의사 선생님들과 인공신장실 여러분들...

이렇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오창권 선생님 이하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택중님 /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거주

## 달리기, 좋아하세요?

봄기운이 완연하다. 바야흐로 책을 덮고 밖으로 나가 바람과 경주하며 달리고 싶은 계절이 성큼 다가왔다. 3월을 기점으로 전국에 굼직굼직한 마라톤 대회들이 줄지어 숨을 고르고 있다. 이달에는 달리기에 관련한 문제를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 달리기의 효능

달리기는 체력단련과 뛰는 즐거움이라는 두가지 열매가 있다. 유산소 운동으로써 심폐기능 강화 효과를 기대하려면 일주일에 3일 이상 한번에 15분 이상 뛰어야 한다. 한편 일주일에 5일 이상, 한번에 5km 이상, 5분/km 이상의 속도로 본격적으로 달리는 사람들은 한결을 나아가 기록향상과 고된 운동을 완수한다는 성취감 등 별도의 목적이 있게 된다.

### 잘못된 습관

달리기와 관련하여 병원을 찾아 오는 분들을 보면 그 배경에 두가지 흔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운동 강도를 갑자기 올린 경우로서 평소에 전혀 운동을 안하던 사람이 뛰기 시작했다는 달리는 거리와 시간을 배로 늘리는 것 등이다. 둘째는 주로 본격적으로 육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강도 훈련을 여러 날 강행한 경우이다. 보통 몇주 후에 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미세 충격과 조직의 피로도가 축적되어 발현하기 때문이다. 황금률은 운동의 강도는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과 고강도 훈련은 최소한 격일제로 하고 사이사이 약한 강도의 운동을 섞어서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이다.

### 발목 및 발의 흔한 질환

**[아킬레스 건염]** 발뒷꿈치 힘줄이 아프고 간혹 소리가 나기도 한다. 급성기에는 약 2주간 운동을 쉬면서 아킬레스 건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체조처방을 시행하면 대부분에서 완쾌할 수 있다. 하지만 만성기에는 치료에 여러 달 걸리고 때로 아킬레스 건 자체가 손상되어 있을 때에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다.

**[후종골 정맥낭염]** 아킬레스 건의 앞쪽에 정상적으로 위치하는 후종골 정맥낭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로서 발뒷꿈치 뼈가 함께 불룩 커져 있기도 하다. 선천적으로 발 아치가 높은 사람에게 잘 동반한다. 치료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를 맞거나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다.

**[족저근막염]** 발바닥 뒷꿈치가 아프다고 병원에 오는 분들 대부분이 족저근막염인 경우가 많다. 치료로는 신발 안에 적절한 깔창을 깔고 족저근막을 펴주는 스트레칭 체조처방을 시행하는 것이다. 약 두달 이상의 꾸준한 치료를 요한다.

### 정강이 질환

**[경부목]** 일반인들에게 낯선 번역체의 이 이름은 달리기 선수들에게는

친근한 병명이다. 달릴 때 근육 및 힘줄에 발생하는 반복되는 미세 충격이 부착 부위인 정강이 뼈 주변 골막에 전해져서 염증을 일으키고 두꺼워지게 되어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초기에는 일주일 이내의 휴식만으로도 잘 치료가 되지만 재발성 만성인 경우에는 다른 원인을 찾아 교정해야하고 운동 프로그램에 자전거나 수영 등 다른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이 질환은 예방이 중요하여 운동 전후에 반드시 스트레칭과 폼롤러를 충분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로골절]** 달릴 때의 미세반복 충격이 뼈에 누적되어 생기는 골절이다. 뼈가 동강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만 실금이 가는 골절로서 발견 당시 이미 금 간 주위에 골진이 나와 있는 예가 많다. 정강이 뼈인 경골과 비골이나 발등의 중족골뼈에 자주 발생하고 약 두달에서 두달반 정도의 깁스 치료가 필요하다. 운동을 전혀 안하던 사람이 갑자기 등산을 다녀왔던지 단축 마라톤을 뛰었을 때에는 발뒷꿈치 뼈에도 잘 생긴다.

**[구획 증후군]** 운동으로 인해 근육의 크기가 커지면서 담고 있는 다리의 용적을 넘치게 되어 다리의 내부압력이 증가하고 정맥혈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질환이다. 달리기와 관련해서는 보통 수년에 걸쳐 서서히 만성으로 오는 예가 많고 일정한 거리 이상을 뛰면 장딴지가 아픈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 심한 경우 근막절제 수술로 치료한다.

### 무릎, 허벅지, 골반 질환

**[거위발 건염]** 무릎 바로 아래 안쪽으로 통증이 있으며 무릎을 일자로 폈을 때 증세가 더한다. 대개 휴식과 물리치료, 소염제로 치료된다.

**[장경대 증후군]** 무릎에서 허벅지 바깥쪽으로 증세가 온다. 달릴때 장경대가 바로 아래 대퇴골과 반복하여 마찰하면서 발생한다. 보통 소염제와 물리치료, 신발 깔창 등으로 치료한다.

**[대전자 점액낭염]** 엉치 가까이 허벅지 뒷쪽으로 증세가 있다. 일차로 소염제와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잘 낫지 않을 때에는 수술로 떼낸다.

모든 스포츠에서 적용되지만 특히 달리기는 운동 환경과 방법이 질환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스트레칭을 잊지 말고 꼼꼼히 챙기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점진적인 프로그램으로 달리기를 하면 즐거운 건강운동이 될 것이다.

김현정 교수 / 정형외과학교실

의료정보 흐름의 혁신

# 디지털 영상진료(Full PACS)를 개시하면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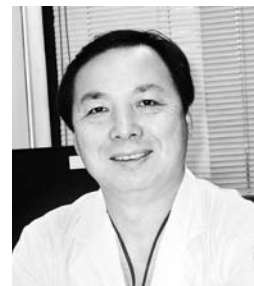
공익들의 사회에서 애칭으로 「돌돌이」라고 불리우며 고탁을 같이하던 방사선과 판독실 내의 전동식 뷰박스 (view box)가 철거되고, 고해상의 판독용 모니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감회가 많고 우리 병원의 진료 및 연구활동에 본격적인 새로운 길을 열게 된 것 같다. 여러 대학병원에서 이미 사용중이지만 시작의 시점이 적절하다고 본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관계된 병원 직원들과 팩스 업체인 메디페이스 엔지니어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였다. 새로운 운영 시스템에 의사가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예상 가능한 고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름대로 고심을 해왔고,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쓸데 없는 걱정을 한 것처럼, 나름대로의 사용법을 고안하여 쉽게 잘 해 주고 있다.

**의학 영상정보의 저장, 판독, 검색 기능의 통합**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는 의학용 영상 정보의 저장(Archiving), 판독(Reading) 및 검색(Viewing) 기능 등의 수행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PACS는 X선 단층촬영을 비롯한 CT, MRI, 초음파, 혈관촬영, PET, SPECT 등에 의해 촬영된 모든 방사선검사 결과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 촬영과 동시에 대용량 기억장치에 저장시켜 판독 전문가가 모니터를 통해 판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의료영상 획득장비와, 진단방사선과 그리고 임상 의사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필름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지 않고, 광디스크 등의 고집적도 저장 장치에 저장함으로써 저장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PACS의 장점**

PACS의 필요성과 장점은 첫째, 필름을 사용하지 않아 과거 그대로 필름의 관리와 보관에 필요한 인원 및 공간이 적게 요구되어 경제적이고 필름의 분실로 인한 데이터의 분실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영상데이터를 여러 곳에서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둘째, 촬영된 환자의 영상 정보를 즉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결과를 신속하게 볼 수 있어 진료와 함께 병원 내에서의 정보 흐름의 지연을 해소하여 환자의 진료시간 및 입원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지역 병원의 중심으로 자매 병원과 연계되면 지역으로 발전에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바라건대, 아날로그 개념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신세대들의 디지털 사고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같이 하였으면 한다. 전공의들은 그동안의 필름에 끌려 왔던 에너지가 환자의 진료로 전환되어야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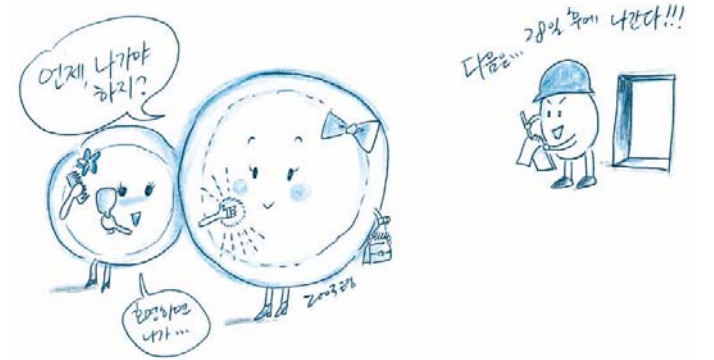


김 선 용 주임교수 / 진단방사선과학교실

# 배란 계산법은 모든 여성이 동일하다?

**생리 · 임신에 있어 필수선행 조건인 배란**

여성이 생리를 시작하는 것은 임신이 가능한 성숙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생리주기는 평균 28일 정도이며 매 주기마다 여성의 자궁 양쪽에 있는 난소 중 한쪽 난소에서 난자를 나팔관으로 배출하는데 이를 배란이라고 한다. 배란기에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 나팔관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면 이 수정란이 자궁 내에서 착상하여 임신이 되는 것이고, 만약 수정이 되지 않으면 증식된 자궁내막이 탈락되어 출혈이 되는 것이 바로 생리이다. 이 만큼 배란은 생리와 임신에 있어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피임과 임신의 최대 효과를 얻으려면 정확한 배란일을 알아야**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 혹은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은 자신의 배란기를 계산하여 성행위를 조절함으로써 임신과 피임의 효과를 얻으려는 분들이 있다. 자신의 다음 생리예정일에서 14일을 앞으로 한 날을 배란일로 잡는 것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배란일 계산법이다. 이렇게 산출된 배란일을 중심으로 앞으로 3일, 뒤로 3일을 합쳐 약 일주일간을 임신이 가능하다고 하여 가임기라고 한다. 이렇게 1주일을 가임기로 정하는 이유는 난자는 배란된 후 약 24시간, 정자는 사정된 후 약 72시간 동안 수정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계산법은 자신의 생리가 아주 규칙적인 분들에게만 해당된다.

**생리불순, 황체기 결함자에겐 통상적 배란일 계산이 적용이 안돼**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여 다음 생리 예정일이 언제인지 가늠할 수 없는 여성들은 사실상 배란일을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황체기 결함이 있는 분들이다. 황체기라는 것은 배란된 후의 자궁내막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배란된 후 약 14일간의 황체기를 거쳐 생리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어떠한 원인이 있어 황체기가 너무 길거나 짧은 경우에는 이 계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는 배란기를 정확히 알아낸 후 자궁내막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으며 또한 임신 자체도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정확한 배란계산은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이상과 같이 배란일 계산은 모든 여성이 같을 수 없다. 생리주기, 배란의 규칙성 유무 및 황체기의 기간에 따라서 배란일은 각각의 여성에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배란일을 알고 싶은 분들은 자신의 생리주기 및 배란 유무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몇 번 배란일을 맞추다보면 여성 스스로 느껴지는 생리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유방이 딱딱해지면서 커진다든지, 질점액이 양이 많아지고 무색투명 해진다든지, 약간의 배란통을 느낀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도 개인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는 분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으므로 이것만 가지고 배란을 판단할 수는 없다. 「배란 계산법이 모든 여성에서 같다」라는 상식은 마치 「사람이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다」라는 말만큼 신빙성이 없다. 정확한 배란 계산을 원한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김 미 란 교수 / 산부인과학교실

##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는 백제병원

### 계룡산의 정기받아 성장하는 백제병원

중부지역 최고의 명산 계룡산의 줄기를 따라 오다가 황산벌전투에서의 계백장군과 후백제 견훤을 상상하며 논산으로 접어들면 시원하게 뚫린 4차선 도로에 둘러싸인 우뚝 솟은 대형 건물이 한 눈에 들어온다. 100여 병상의 시골 조그만 병원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6,000여평의 부지 위에 연건평 5,000여평의 최신식 의료시설을 갖추고 61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성장한 백제병원이 그곳이다.

###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소외된 계층을 위해 봉사

20여년 전인 1980년 4월, 논산의 외곽에 위치한 조그만 야산을 깎아서 설립한 의료법인 백제종합병원(이사장 이준영, 원장 이재성)은 의료 사각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함께 하자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개원 이래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면서 현재는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 그리고 24시간 응급환자를 비롯한 어떠한 중환자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종합진료체계를 갖추고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면서 환자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 선진병원의 장점을 우리의 것으로

백제병원은 각 부서별로 실시되는 친절교육팀의 교육연수, 친절직원의 선정 및 해외연수를 통하여 언제나 친절한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서별 직원들의 전문화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질적 향상 및 사기를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여러 가지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친절교육에서는 선진병원의 모델을 인용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과는 2002년 5월 31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하여 인적자원교환, 물적 교류, 기타 정보교류 등을 통해 아주대학교병원의 장점을 배우면서도 백제병원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따뜻한 가정같은 병원

또한 백제병원은 무엇보다도 직원들간의 유대관계가 돋보이는 병원이다. 따뜻한 대화, 가족같은 분위기, 간호부의 MT를 통하여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매월 생일자에게 포상을 하는 등의 활동은 직원과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는 백제병원의 또다른 모습이다.



### 양방과 한방 의료 협진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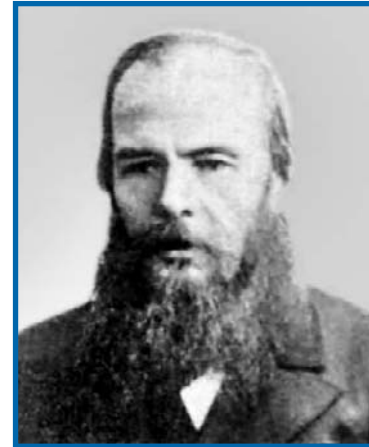
2000년 2월에는 노인·한방 병원을 개원하여 치매환자, 중풍환자, 기타 만성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 등 양방과 한방 의료 협진체계를 구축하였다. 도로가 얽혀있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원구조의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를 통한 신속한 응급의료망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근장거리에 있는 환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병원버스를 수시로 운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병원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전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21세기 의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병원

현재 백제병원은 최신식 장례식장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전 병원을 LAN으로 묶고 신속한 OCS SYSTEM을 운영하는 등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시설을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급변하는 21세기 의료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영 배 팀장 / Q팀

## 간질환자 도스토예프스키 = <백치>주인공 미쉬킨 공작



「가난한 사람들」,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등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1821-1881). 그의 문학을 접하고 있으면 어딘지 모르게 우울하고 심오하며 철학적이란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 인간에게 납득할 수 없이 다가오는 고통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그는 한평생 씨름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도스토예프스키는 작품 속에 자신을 잘 드러내는 타입이며, 대부분의 작품들이 자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그의 작품을 읽다보면,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 내면의 갈등 그리고 고난과 좌절로 점철되었을 그의 삶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다고 평가되는 <백치>를 보면 당시 그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연히 알 수 있다. 평소 간질 발작으로 자주 쓰러지던 도스토예프스키는 <백치>의 주인공인 미쉬킨 공작을 간질 환자로 만들어, 자신이 한때 요양했던 스위스의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미쉬킨 공작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간질환자와는 사뭇 다르다. 발작을 일으킬 때 현실 지각능력이 보다 높은 차원으로 고양되며, 인간과 사물에 대한 투시능력이 있을 정도로 직관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발작의 시작에 대하여는 『지혜와 정서는 더없이 밝은 빛으로 빛나고 온갖 의혹과 모든 불안을 조화를 이룬 환희와 희망에 넘치는 신성한 평온 속에 한꺼번에 용해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 눈부신 광휘는 발작이 일어나기 직전의 1초 동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백치>에 묘사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이 발작 시 이러한 상태를 경험한 것이 거의 분명하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도스토예프스키의 질병은 인간 두뇌의 정서와 기억 중추에서 발작이 시작되는 「측두엽 간질」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많은 측두엽 간질 환자들이 초기 전구증상으로 다양한 정서적 체험을 하는데 아주 드물게는 도스토예프스키처럼 도리어 긍정적이고 황홀한 체험을 하기도 한다. 또한 측두엽 간질 환자는 특정한 성격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철학적이고 관념적이며 종교적인 성격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도스토예프스키 본인이 측두엽 간질로 인해 이러한 성격변화를 나타내고, 이러한 특징들이 그의 문학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간질 환자였지만 그로 인해 인간 내면의 고통, 삶과 죽음에 대해 몰입하고 철저하게 묘사할 수 있었던 도스토예프스키, 만약 그가 톨스토이처럼 건강한 인간이었다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문학가로 현재까지 기억될 수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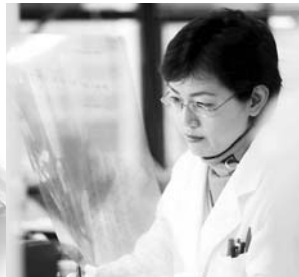
허 균 주임교수 / 신경과학교실

최고의 의학명문 아주대학교의료를 여러분이 키웁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을 위한 자리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조성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창의력이 있는 의과대학, 질병 연구와 치료의 흐름을 선도하고자 하는 저희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신설되는 교육·연구동에는 첨단 연구시설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정보 교류와 협력, 시설의 공유를 통해 역량을 극대화하여 아주대학교의료원 연구의 중심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모금 현황

▶▶총계

구분	회원수	약정액	기부총액
월간	19명	25,900,000원	350,000원
누계	252명	839,826,201원	615,111,201원

성명	약정액	의료원과 관계
김영선	500,000	진단검사의학과
김철호	1,000,000	이비인후과 교수
노경식	500,000	CCU
새빛병원	5,000,000	교외 후원
서창희	2,000,000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교수
송종례	500,000	가정간호센터
수술실 일동	200,000	
안정수	1,000,000	교외 후원자
유병무	2,400,000	소화기내과 교수
이광연	400,000	시설관리팀
이다리	500,000	산업의학과
이재호	2,000,000	생화학교실 교수
이종찬	2,000,000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이현숙	500,000	진료의뢰센터
정윤석	2,400,000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조기홍	2,500,000	신경외과 교수
조성란	2,000,000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채윤정	1,000,000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허문희	500,000	7층 동병동
○○○	1,000,000	교외 후원자

### ■ 우리 모두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의학발전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다양한 형태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의료기기,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도 좋은 후원입니다.

###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 지로납입    전화신청    031-219-4000
- 자동이체    거래은행    신청 후 후원회에 전화통보
- 무통장 입금    거래은행    예금주 : 아주대학교의료원
- 제일은행    692-20-166907
- 한미은행    542-00896-248
- 농협        116-01-060243
- 국민은행    593501-01-082841
- 우리은행    177-089499-13-102

(가나다순)  
2003.1.18~2003.2.15



게시판

유전학클리닉, 「사랑의 릴레이」 제6호 발간

유전학클리닉(한국회귀질환연맹)은 한국회귀질환연맹 소식지인 「사랑의 릴레이 제6호」를 발간했다.

이번 소식지는 지난해 11월23일 열린 사랑의 릴레이 음악회와 회귀질환 Database 등록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연구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학습 및 발달장애진 클리닉 조선미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학습 및 발달장애진 클리닉 조선미 교수(정신과)가 지난 2월 5일 생방송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출연하여 「턱으로 본 심리상태」에 대해 궁금증을 설명했다.

2003년 한국 작은키모임(LPK) 개최



한국 작은키모임이 지난 2월22일, 23일 양일간 아주대병원 2층 회의실과 경기중 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모임에는 왜소증으로 8살에 미국

으로 입양되었다가 중·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현재는 법대생이 되어 있는 Katy Eley(신경희)와 여러 약조건에서도 케이트양을 헌신적인 사랑으로 훌륭한 인재로 키워낸 어머니(메리 베스 엘리)가 함께 참석하여 왜소증 환우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행사 첫날은 한국 작은키모임 정기총회 행사를 비롯하여 왜소증 DB 구축의 필요성과 유용성, 왜소증의 외과적 치료, 의료비 지원내역에 관한 보고, 왜소증 회원들의 직업선택, 사랑의 릴레이 전달식, 초청공연 등으로 진행됐으며, 23일은 케이트와 한국 작은키모임 학생들과의 워크숍을 가졌다.

클릭!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www.ajoumc.or.kr

전문클리닉 진료시간표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4310 내과	강신영	5818		월	수부 및 상지외과	
	박해심	5902	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남동호	5902	해외연수중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서창희	5818	월, 화	화, 수, 금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만성염 관절염, 소그렌 증후군, 혈관염 및 자가면역질환에 동반된 관절염	
	서유진	5902	토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통풍	
	민병현	5543		수	슬관절 및 견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척추외과	
	원예연	5542	월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수부 및 상지외과	
	김현정	5543	수		발목 및 발의 질환	★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5979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5903	화, 목	수	각종 유전질환, 유전성 암질환	
	김현주	5903	화, 목	수	유전상담	
5890 통증클리닉	김찬	5897	월, 수, 금		삼차신경통, 다반중, 수족냉증, 대상포진후 신경통	
	한경림	5897	화, 목, 토	수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두통, 교감신경위축증	
5890 일반진료	김영옥	5897		월, 화, 목, 금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등 알성통증 기타	
	박희봉	4743	화	월, 목	유방질환	
5814 학습 및 발달장애진클리닉	오은영	5814		수	소아·청소년 정신과, 발달장애	
	조선미	5814	금, 토	화, 금	심리검사 프로그램	

전문클리닉명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비고
소화기내과	간암클리닉	조성원 5969	월, 화, 목		
		이기명 5963	수, 토	월	
순환기내과	심부전클리닉	최병일 5974	월		
		정혁재 5975	목		
호흡기내과	여행자 예방접종클리닉	최영화 4730	목	월, 수	
일반진료내과	별동(근종독)알레르기클리닉	박해심 5905	월, 금		★
		남동호 5905	해외연수중		
정신과	공황장애 인지행동 치료클리닉	임기영 5810		목(19:00~21:00)	
피부과	안면색소클리닉	강원형 5912	월, 화, 목		화(레이저치료)
	모발클리닉	윤경한 5914	금, 토	화, 금	★
흉부외과	하지정맥류클리닉	최호 5752	화, 목	화, 목	
신경외과	뇌졸중 혈관내 수술클리닉	신용삼 5664	수		
		김신용 5858			
성형외과	구순구개열클리닉	박명철 5611	수		
	안면윤곽 미용클리닉	정재호 5612	해외연수중		
안과	콘택트렌즈클리닉	문상호 5671		금(1주, 3주)	
	움직이는 의안클리닉	문상호 5671		금(2주, 4주)	
비뇨기과	요실금클리닉	최중보 5587	화, 금	수	
	야뇨증클리닉	김영수 5586	수	금	
가정의학과	비만클리닉	김병덕 5957	월, 수, 목	금	★
		신상호 5957	목		
치과	인공치아 이식클리닉	황병남 5869	월, 금	화, 목	
	턱관절 장애클리닉	고석민 5869	월	수	

아주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2003년 3월1일 현재)

외래진료 접수시간

\* 평 일 오전 8:00~오후 4:00  
\* 토요일 오전 8:00~오전 11:30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5976 소화기내과	조성원	5969	월, 화, 목		간질환	
	김진홍	5962	화, 금	수	췌-담도질환, 치료내시경	
	황기백	5963	목	화, 목	위장질환	
	이광재	5963	해외연수중		위장질환	
	유병무	5962	월, 수	금	췌-담도질환, 치료내시경	
	이기명	5963	수, 토	월	간·위장관질환	
	황일란			화, 금	위장관질환	
	정재연	5962	금	월, 목	간장질환 및 위장질환	★
	일반진료			화, 수, 금	소화기질환	★
	5717 순환기내과	최병일	5974	월, 화, 수		고혈압, 심장질환(심부전)
탁승재		5973	화, 수	수	고혈압,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	
신준환		5975	해외연수중		고혈압, 심조음과	
황고승		5975	월, 목	월	부정맥, 심장박동기	
박재우		5973	토		외국인진료	
윤영호		5975		화, 목, 금	고혈압, 심장질환	★
최소연		5975	금	수, 금	고혈압, 심장질환	★
장혁재		5975	목, 금	월	심부전	
최태영		5975		목	고혈압, 심장질환	
일반진료		토				
4730 호흡기내과	황성철	5967	월, 화, 금	목	폐결핵, 감염성폐질환, 폐암	★
	박광주	5967	수, 금	월, 화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중환자치료	★
	최영화	4731	목	월, 수	폐스 원인으로 인한 흉터, 크기가 불발, 거창결핵	
	오은정	5968	월, 목	화, 금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
	신승수	5968	화, 수, 토	목	호흡기질환	★
	일반진료	5968		수	호흡기질환	
5954 내분비내과	김현만	5960	화, 수, 목	수	갑상선질환 및 내분비대사질환	
	이관우	5956	월, 수, 금	목	당뇨질환 및 내분비대사질환	
	정윤석	5961	화, 목	월, 금	골다공증질환 및 내분비대사질환	
	일반진료	5961	토		내분비대사질환	
4740 신장내과	김홍수	4741	월, 수, 목, 수, 금		만성신부전증,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신규태	5971	화, 목	월	신장이식, 고혈압, 사구체신염	
	일반진료	5971	토	화		★
5990 중양혈액내과	김호철	5992	월, 수, 금		림프종, 골수종, 백혈병,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임호영	5991	월, 화, 목		식도·위장·대장·직장암, 각종 고혈압	
	최진혁	5991	수, 금	월	두경부·식도·폐암, 유방암, 각종 고혈압	
	박준성	5991	화, 목	화, 수, 목	혈액질환, 종양	★
	일반진료		토	월, 금	각종 암 및 혈액질환	★
5902 임플란트클리닉	박해심	5905	월, 수, 목	수	기관지천식, 알레르기 질환, 류마티스	
	남동호	5905	해외연수중		기관지천식, 알레르기 질환, 류마티스	
	서창희	5818	월, 화	화, 수, 금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만성염 관절염, 소그렌 증후군, 혈관염 및 자가면역질환에 동반된 관절염	
	서유진	5905	목, 토	월, 화, 목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질환, 류마티스	★
	최정희	5905	화, 토	금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질환, 류마티스	★
5902 일반진료			금	알레르기 질환, 기관지 천식		
					*는 관철염센터 진료	
내과일반	5970	월-토	월-금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5619 소화기내과	홍창호	5620		수, 금	청소년 의학, 성장과 발달	
	김성환	5616	화, 목, 금	수	신경학	
	배기수	5623	월, 화, 금	수	신장학	
	이수영	5623	월, 수, 목	수	알레르기, 호흡기학	
	박문성	5617	월	수, 화, 금	미숙아, 신생아학	
	정조원	5621	수	월, 목	심장질환(대, 수, 금 오전은 심장 초음파기능)	★
	김순남	5622	수, 금	수	내분비질환, 유전대상질환	★
	박준원					★
	일반진료		월-토	월-금		
토요일은 특진1명, 일반 1명의 의사가 주마다 교대로 진료를 합니다.						
5656 신경과	허균	5659	화, 수	월, 목	간질, 치매, 뇌혈관질환	
	주인수	5653	화, 목	월, 금	말초신경질환, 근육질환	
	방오영	5657	월, 금	화,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치매	★
	이필후	5657	월, 토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간질	
	일반진료	5657	수, 목, 금	화, 목, 금		
5814 정신과	정영기	5811	월, 수, 금	화	정신분열증, 사회공포증, 불안장애, 스트레스장애	
	임기영	5810	화	수, 금	공황장애, 강박장애, 불안 및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이영문	5810	목, 토	월, 목	정신분열의 재활치료	
	노재성	5811	해외연수중		우울증 및 신경성 신체장애	
	오은영	5812	월, 수	수, 목, 금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지적장애	
	일반진료	화		목, 금		
5917 피부과	이성낙	5912	(예약)		베제트병, 화학박피술	
	강원형	5912	월, 화, 목	(예약)	멜라닌세포 질환 (화·레이저치료)	
	이은소	5913	수	월, (예약), 목	건선, 여드름, 베제트병(수·레이저치료)	
	윤경환	5914	금, 토	화, (예약)	모발질환, 탈모치료·술전, 세소질환, 안면주름 (금: 레이저치료)	
	강희영	5914	월, 목	월, (예약)	백반, 무좀, 접촉피부염 색소질환 (목: 레이저치료)	★
	레이저치료			화, 수, 목, 금	예약에 의함	
일반진료		월, 수, 목, 금, 토	월, 화, 목			
5758 외과	김영옥	5761	월, 수(초진)	수	난치성 소화기(위, 담도, 췌장)질환	
	조용관	5760	화, 토	수	소화기(위) 질환	
	소의영	5756	수, 금		내분비 질환, 두경부 질환	
	홍정	5754	화, 목		소아과 질환	
	왕희정	5753	금	화, 금	간·담도질환	
	서광욱	5753	월	목	소화기(대장·항문)질환	★
	박희봉				유방질환	
	오창권	5760	(예약)	월, 금	소화기, 이식	
	김욱환		목, 토		소화기(담도, 췌장)질환	
	한상욱	5954	금	화	소화기(위, 십이지장) 질환	★
미국중	5753	목		외상외과, 소화기·소아외과		
정용식	5756		목	소화기 질환		
김인규	5756		금	소화기 질환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031) 219-5114  
219-6114
- F A 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외국인안내 : (031) 219-5546
- 응급의료센터 : (031) 219-60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과명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진공	비고
흉부 외과 5752	이철주 5749	금	금	성인심장외과	
	소동문 5750	월, 수	월	소아심장외과, 혈관외과	★
	최 호 5750	화, 목	화	폐·식도외과, 다한증, 하지정맥류	★
	강준규	토	수, 목	폐·심장외과	★
정형외 과 5545	강신영 5544		월	수부 및 상지외상, 기형, 미세수술외과	
	민병현 5543	월, 금(초진)	수*	슬관절 및 견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목		척추외과	
	원예연 5542	월, 수	목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월, 화	수부 및 상지외과, 미세수술외과, 사지 혈관신경외과	
	김현정 5542	수	화, 목	발목 및 발의 질환	★
	일반진료 5542	화, 금, 토	수, 목	*는 관절염센터 진료	★
신경외 과 5664	조경기 5661	월, 목	수	뇌종양, 척추질환	
	조기홍 5662	목	월, 목	척추질환, 외상	
	윤수한 5662	화, 금	화	소아신경외과	
	안영환 5662	수, 금	수	뇌정위기능, 신경통증, 방사선 수술	
	신용삼 5663	수, 토	금	뇌혈관질환	
성형외 과 5614	박명철 5611	월, 수, 금	월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정재호 5612	해외연수중		악안면부성형, 미용성형	
	박동하	토	수, 목	수부성형, 미용성형	
일반진료	월-토	월-금			
산부인 과 5597	오기석 5595	화, 목, 금		부인과 질환	
	유희석 5594	화, 목	월	부인암	
	김행수 5593	월, <b>화</b> , <b>목</b>	화, 금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장기홍 5594	월, 수, 금	화	부인암, 복강경수술	
	양정인 5593	<b>화</b> , 수, <b>목</b>	월, 목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황경주 5643	수, 금	월, 수, 금	불임 및 복강경	★
	이정필 5595	월, 토	수, 목	부인암, 산과, 부인과	
	김미란 5643	화, 목, 토	화, 목	불임, 산과, 부인과	★
	일반진료	월-토	월, 수, 목, 금		
안과 5673	유호민 5669	월, 수, 금	<b>화</b> (예약), <b>목</b> (예약)	망막, 초자체, 백내장	
	안재홍 5670	월, 금		각막, 녹내장, 엑시머·라식수술	★
	문상희 5672	토	월, 목	사시, 소아안과	
	문상호 5671	화, 토	금	위안부, 백내장, 렌즈클리닉	
	일반진료 5671	월-토	월-금		
이비인 후과 5747	박기현 5742	월, 금	수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문성균 5742	<b>화</b> (난청클리닉)	월, 목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
	장연훈 5742	<b>목</b> (어지럼증)	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
	김철호 5746	수, 목, <b>금</b> (클리닉)	월	두경부 종양, 기관식도 질환	★
	김현준 5746	토	화, 수	비염, 부비동염, 후각장애	★
	최호석	화, 토	목	난청, 부비동염	★
일반진료	월-토	월-금			

진료과명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진공	비고
비뇨 기과 5585	김영수 5586	수	금	소아비뇨, 여성 방광염	
	김세중 5587	월, 화	목	비뇨기 종양(암)	
	인현수 5588	목	월, 화	요로결석, 불임	
	최중보 5587	화, 금	수	배뇨장애, 요실금, 남성과학	
일반진료	토	월-금			
재활 의학과 5802	이일영 5795	월, 수, 금		척추손상	
	나은우 5796	화, 목	목, 금	뇌졸중, 뇌손상, 절단자 재활	
	임신영 6440	토	월, 화, 수	소아재활	
	일반진료	화	목		
치방사 선과 5884	전미선 5884	월-토	월-금	종양(부인과, 유방암, 소화기암)	
	오영택 5884	월-토	월-금	종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강승희 5884	월-토	월-금	종양(뇌종양, 육종, 정위방사선치료)	
핵의학과 5939	윤석남 5947	월-토	월-금	핵의학(전단, 동위원소치료)	
	윤준기				
신안면 외과 5614	이경중 5645		화, 금	직업성 질환	
	일반진료 5644	토	월-금		
	김광민 5957	월, 수, 금	화	만성피로, 노화관리, 남성갱년기	
가정 의학과 5959	박새별 5957	화, 금	월, 목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
	김범택 5958	월, 수, 목	금	비만, 골다공증	
	신상호 5958	목		비만	
	손중천 5958	화, 토	수, 목	갱년기, 금연	
	정유지		월, 금		★
	일반진료	월-금	월-금		★
치과 5869	항병남 5869	월, 화*, 목*, 금*	화*, 목	인공치아식, 턱관절장애	
	고석민 5869	월, 수, 목, 금*	월*, 수*	인공치아보철, 틀니	★
	이정근 5869	해외연수중		악안면외상, 악안면기형(주걱턱)	
	이승훈 5869	화*, 금*	월, 화, 수, 금	치열 및 악안면기형 교정	
	일반진료	월-토	월-금	*는 별도 예약 ※ 토요일은 특진과수가 교대로 진료를 합니다.	

진료과명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야 간	세부진공	비고
응급 의학과 6001	조준필 6005	월, 수	금	화	외상, 응급의료전달체계	★
	정운석 6005	화, 목	수, 금	목	독극물중독, 기타응급질환	
	이국종 6005	금	월, 목	월, 금	외상외과, 외과계응급질환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는 특수진료입니다.
3. \*는 세부진공만 진료합니다.
4. ■은 추가비용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 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

셔틀버스 운행 노선 (운행간격 : 20분)

병원 → 아주대 입구 (한빛은행) → 세대아파트 →  
 동수원사거리 삼성생명 → 동수원사거리 조흥은행 → 호텔캐슬 건너편  
 이화약국 → 아주대 삼거리 →  
 국립지리원(팔각정 갈비 옆) → 병원